

북한개발소식

2023 MAY

05

통권 211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사상문화 통제 정책과 청년 세대

탈북민 수기

이끄심-5화

북한뉴스

북, 첫 고체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은 무산

서평

북한경제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사상문화 통제 정책과 청년 세대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3 MAY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사상문화 통제 정책과 청년 세대

- 권두칼럼 **01** 북한의 사상문화 통제 정책과 청년 세대
- 칼럼_1 **09** 채경희_ 북한 청년세대 일상
- 칼럼_2 **15** 이시효_ 북한 청년세대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
- 칼럼_3 **21** 전일구_ 북한 청년세대에 대한 외부문화 통제 실태와 배경
- 탈북민 수기 **27** 김서윤_ 이끄심-5화
- 북한뉴스 **34** 북, 첫 고체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은 무산
- 서평 **38** 북한경제
- 북한 기도 제목 **40**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01



09



15



21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올해 초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는 사상과 문화 통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언어를 단속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으며, 단속 조직도 82연합지휘부라는 이름으로 개편, 확대된 정황이 관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외래문화와 미디어의 유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러한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이미 북한 내부에 한류 및 외래문화와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법 제정과 함께 청년세대에 대한 우려와 각성의 메시지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청년교양보장법'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직접적으로 청년층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요즘 북한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에 당국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우려하고 있는지 관련 연구자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로서는, 향후 북한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알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당국의 사상문화 통제 정책과 연관하여 유추해보고, 향후 북한 사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청년 세대와 외래문화

북한의 청년 세대에 대한 연령적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990년대에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젊은이들을 의미한다.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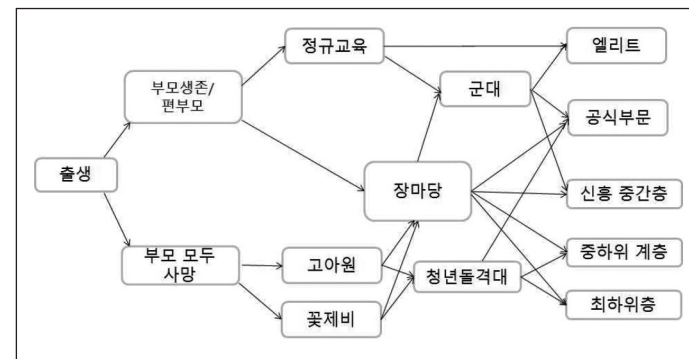
마당 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은 연령으로 따지면 대략 20-30대에 해당될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북한 청년 세대는 특별히 그 차이가 주목되는데, 이는 북한 사회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기존 국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장마당이라는 시장 활동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변동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성경(2015)은 북한의 청년 세대를 ‘사이(in-between) 세대’로 설명한다.¹ 북한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과거 체제가 제공 해주었던 여러 혜택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가 없으며, 국가에 대한 어떤 운명공동체로서의 감정 이입이나 믿음이 약한 세대이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성공하기에는 자본과 경험 모두 부족하며, 그런 가운데 국가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시장에서도 주체가 되지 못하는, 양쪽 모두에 속하고자 하지만 양쪽 모두에 속하지 못하는, 사이의 존재로 머문다는 것이다. 채경희(2019)는 장마당 세대의 세대 의식

에 대한 연구에서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체험’ 외에도 ‘공교육의 붕괴’ 경험에 주목한다.²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마당 세대는 정치, 사회, 준법, 교육 의식이 기성세대보다 낮고, 반면 경제 의식은 기성세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 중에서 특히 준법, 교육 의식이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공교육 붕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의식 특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에서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기성세대와 확연히 다른 사회변동의 주체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황규성(2016)은 불평등 체제의 변화와 연관지어 청년 세대를 바라본다.³ 80년대까지 북한은 성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긴 했지만 ‘안정적 불평등 체제’였다고 본다. 즉 일부 좋은 성분을 지닌 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인민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정 수준의 배급과 돌봄, 교육, 일자리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불평등의 체감은 낮은 체제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이 불가능해지고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성분 외에도 경제력에 따른 계급이 형성되고 ‘다차원적인 불평등 체제’로 변

1 김성경 (2015),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19(1), 6-39.

2 채경희 (2019),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 313-322.

3 황규성 (2016),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 연구학회보 20(1), 153-180.



〈그림1. 북한 청년의 삶의 궤도〉

화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불평등을 기성세대보다 더 크게 느낄 뿐 아니라, 불평등을 극복할 자원이나 능력을 갖추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청년들의 주요 과제는 ‘생존투쟁’이 되었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보통 부모에 따라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주기의 대략적인 양상을 〈그림1〉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시호 외(2022)의 평양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의식구조를 ‘이중 의식’으로 묘사했다.⁵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인민으로 행동하지만, 개인의 공간에서는,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또래 집단에서는 인간적 감정과 느낌을 갈망하고 일탈을 즐긴다는 것이다. 한류 문화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느낌을 제공해주는 매개체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대외적으로 완벽한 ‘연기’를 위해 나라 바깥의 사실이나 정치적 의식의 부분을 애써 배제하고, 마치 뇌

4 앞의 글, 170.

5 이시호 외 (2022), “평양 청년세대 ‘이중’ 의식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6(2), 113-145.

를 빼놓고 사는 느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 즉 사적인 태도와 공적인 태도가 다른 이중사고와 이중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를 비롯한 외래 미디어나 외래 문화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은 북한의 문화 사상 통제 강화 정

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한류를 포함한 외래문화 전파가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 변혁을 촉진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화 확산이 현 체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 그렇지만 탈북 청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북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한류 및 외래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시호 외(2022)의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평양 출신 청년들은 자신들이 한국 문화를 욕망한 데에는 한국 사회의 진실이라던지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보다는 북한사회에서 접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 ‘인간적인 느낌’,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때문이었다. 한국 영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식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싶은 것이었다.⁶

6 앞의 글, 137-138.



〈중국의 탕핑족을 묘사한 그림 (사진=바이두)〉

김성경(2015)의 연구 역시 청년층의 남한 대중문화 향유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의식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연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은 대체로 “재미있기 때문에” 남한 영상물을 시청했다. 이들에게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는 일종의 판타지 세계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삶으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즐거움의 수단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남한이 아닌 중국에서 나온 줄 알고 보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옷가지나 화장품 소비 등에 있어서도 이들의 욕망은 국가를 피해 남한 영상물 속 배우의 그것을 따라하고 싶다라기 보다는, 단속이나 규율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⁷ 이러한 여러 연구들에서 관찰되는 북한 청년 세대의 모습은 불안정해 보인다. 국가와 시

장으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청년들은 양쪽 모두에 발을 걸치고 이해타산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인간적인 감성에 대한 욕구를 자기만의 공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또래들 속에서 한류나 외래 미디어를 즐기면서 일부 해소하는 모습이다.

사상이 투철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정치적 의식이 개화한 것도 아닌 그들의 모습에 대해 황규성(2016)은 매일 매일 그력저력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했다.⁸ 북한 청년세대를 북한 사회의 체제 변화의 주역이나 북한이 원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로서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보통의 젊은이임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북한의 청년세대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 중국의 MZ세대의 그것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N포’세대나 급격한 출산율 감소 현상, 중국 MZ세대에서 유행하는 ‘탕핑족’⁹ 등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슨 수를 써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운 북한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과,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유사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를 해소하거나 표현함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청년들보다 더 큰 제약을 경험하는 것이 북

8 황규성(2016), 174.

9 탕핑(躺平, 평평히눕다)족은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주로 젊은 세대(20-30대)에 유행하는 신조어로 취업이나 결혼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한의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대응과 그 배경

최근 외래문화 유입 및 확산에 대해 북한 당국이 느끼는 위협이 더욱 심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사상이 흐려지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훨씬 강경한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그만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생각해볼만한 점은 현 북한의 청년 세대가 당국이 제시하는 사상과 문화가 아닌 외래의 것으로 자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구(2022)는 한류를 포함한 외래문화가 북한에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세대 공감’과 ‘세대 단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¹⁰ 과거 북한은 지역간 왕래가 제한되었고, 지역별 경제적 문화적 편차가 심했다. 외래문화도 주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장마당의 활성화와 IT기술 발전으로 한류 콘텐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북한 전역의 청년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당국이 만들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아닌 한류 콘텐츠를 바탕으로 평양의 젊은이와 양강도 혜산의 젊은이가 같이 공유하는 문화와 유행이 만들어

10 전일구(2022), “북한의 반동사상문화 인식과 대응: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청년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31(2), 77-78.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화 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체사상은 점차 흐려지게 된다면, 과거 동구권에서의 반정부시위와 같이 이들이 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응집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가하여서라도 이러한 반동사상문화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외래문화와 미디어 확산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엘리트와 부유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이 당국의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충분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류에 비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향유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또래들 사이의 공유도 더욱 활발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2022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에서 가장 타매(唾罵·더럽게 여기고 경멸)하는 비당적이고 비혁명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 끝'만 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품 들여 가꾸는 혁명학원이라는 화원에 잡초나 독초가 뿌리 내릴 자그마한 공간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역설했다.¹¹ 그런데 이 학원은 이

11 "비사회주의의 바늘만큼도 안돼"...김정은, 외부문물에 안절부절, 연합뉴스 (2022.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3155900504>>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연설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정일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다.〉

른바 '혁명가 유자녀들'이 다니는 '최고의 엘리트 간부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 가장 사상이 투철해야 할 엘리트 학교에서 김정은이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체제 유지의 중추가 되어야 할 권력층의 자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그렇지만 활발하게 한류 문화 콘텐츠가 공유되는 현상이, 당국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는 대목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에 대한 대응 강화 이유는 북한 당국이 느끼는 체제 위기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북한 엘리트의 자제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활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당국의 우려를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고위층 및 간부 계층에 대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 강도가 21년 1월에 열린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크게 강화되고 관련된 간부 문책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히 일부 간부들이 감독·지도에 소

극적이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나 고위층이 비사회주의적 현상 그 자체를 비호,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²

이런 동향은 최근 조선일보가 입수한 22년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주민 교육·선전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이 영상은 평양에서 각 구역별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소탕작전을 진행하여 만경대 구역에서는 140건의 행위를 적발·처리하였고, 서성구역에서는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난시기 저지른 불법행위를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³ 정권의 핵심지지층이 밀집된 평양에서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국이 체제유지의 기반인 권력층에 대해서도 사상 이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고강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북한의 청년층이 단시일 내에 북한 사회 변혁을 이끄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느끼는 체제 불안이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의 경

12 박서화 (2021), “비사회주의 투쟁의 최근 경향과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2021-21, 5.

13 평양서 한류 소탕전...“2중 3중 야간순찰, 한 구역서 1000명 자백”, 조선닷컴 (2022.12.26.),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12/26/OWVUXBX-4INFENOH7CI3V62OKAM/>

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가 시간이 지나 사회의 주류로 성장했을 때에도 충성스러운 인민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상 문화 통제 정책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많다. 만약 한류 문화가 북한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막는 것만으로도 당국이 바라는 모종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의 불안정한 위치와 사회적 모순을 잠시 잊고자 일종의 판타지적인 도피창구로서 한류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 이를 막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억압으로 인한 불만이 중첩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청년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권력층의 사상 이반에 대한 우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몇몇 한류 미디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이 가진 사회적 모순이 일반 서민에서부터 권력층까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외래 미디어가 기존의 DVD에서 USB를 지나 SD 카드 형태로 유통되는 등 점차 소형화되고 있으며, 이어폰으로 상징되는 개인화된 감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¹⁴ 기술 발달에 따른 단속 자체의 실효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이 사회의 모순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류 세

14 하승희 (2022), “김정은 시대 북한 세 세대의 음악듣기: 음악청취방식과 음악문화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26(1), 213-246.

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일 수 있는 억압과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도 가능하고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감히 회의적이라고 진단해본다. 북한 청년들에게, 아니 북한 주민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통제와 억압이 아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억압과 희생의 강요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결론과 제언

북한 청년 세대의 변화와 당국의 대응을 살펴 보며 개인적으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이 떠올랐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이 소설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 갓난아기의 어머니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오길 거부하였다가 땅으로 떨어진 천사 미카엘(미하일)이 등장한다. 미카엘은 3가지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답하여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추락하여 길바닥에 버려진 미카엘은 자신을 도와준 구두장이 시문을 통해 첫 번째 질문의 답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를 깨달았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거들먹거리는 부자를 보며 ‘사람에겐 자신에

북한 청년세대 일상

채 경 희 (총신대학교 교수)

1. 젊은 세대와 ‘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이들은 그 사회의 미래다. 동시에 기성세대에게는 일면 불신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 사회 역시 ‘요새 젊은이들’에 대한 질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다. 21세기 들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젊은이들은 ‘황금만능주의’에 질게 물들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평양과 지방에서 돈만 있으면 그 무엇도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 사회는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쩐’의 사회다. 일상생활에서 빠지나오기 어려운 함정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대학의 입학과 졸업은 물론이고 군 입대와 제대, 당원이 되는 것, 간부로 등용되는 것, 조직생활과 생활총화에 빠지면서 사적인 일을 보는 것, 강력범죄를 경범죄로 바꾸어주거나 무마시키는 것, 출신성분을 세탁하는 것, 직장이나 사회에서 간부나 부원과 충돌이 생겼


을 때, 화교가 아닌 젊은이를 화교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그 등급에 상응한 뇌물을 고이면(‘뇌물을 주다’의 북한식 표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평양과 지방의 젊은이들에게 ‘돈은 곧 신이다’로 통한다. 이런 사회병리적 현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닐진대, 구세대가 만들어놓은 것임에도 되레 “요새 젊은이들은 돈밖에 몰라서 큰 문제야.”라고 혀를 차고 있다.

기성세대가 구분하는 신세대는 ‘장마당세대’라고 불리는, 즉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1995~1998년)이라는 엄혹한 시기를 거치면서 쌀배급을 경험하지 못했고 ‘공교육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20~30대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젊은 세대는 북한당국이 그토록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적인 요소들을 교과서에서만 봤을 뿐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머리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림이

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데려오길 거부했던, 그 어머니를 잃었던 두 아이가 마을 사람들과 양부모의 도움으로 잘 성장한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북한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으로 살까?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자신의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국이 보여주는 억압과 통제는 답이 되지 못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그 복음을 대안으로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현재 한국 교회가 겪는 혼란을 생각할 때 우

리가 답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 답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간은 흐르게 마련이고 현재의 청년 세대는 결국 북한의 주류 세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 시기가 되면 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구성원의 성향이 바뀌는 만큼 지금과는 또 다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북한 당국이 미처 견줄 수 없는, 일종의 사회적 대변혁을 머지않아 목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복음적 대안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단순히 북한 사역의 활성화뿐만이 아닌 한국 교회 전반의 갱신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길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북한 평양의 식료품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돈을 꺼내는 모습 (사진=VOA)〉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과 같이 사회주의가 우월하다고 선전하니, 사회주의를 걸발림 식으로 외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의 신념이 무너진 젊은이들의 마음자리에는 ‘돈에 대한 우상’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결과 평양의 젊은이들을 선두로 하여 북한 전역의 젊은이들 모두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2. 제도가 젊은이를 망친다.

평양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돈벌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실망시킨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김정일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화폐개혁(2009년 말, 1인 10만원까지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준 개혁)으로 인해 장마당과 시장을 통해 돈을 벌었던 상인들이 몰락하고 배급제로 환원되던 당국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자 당국은 김일성 탄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꼬옥 강성대국을 건설할테니 조금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참고 견디자고 매일 선전했다. 모든 매체는 2012년만 되면 지난날의 모든 고생이 행복이 된다고 하니 반신반의는 하면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당국의 말을 믿어야 했다.

그러던 2011년 말, 김정일의 사망소식이 들려오고 2012년이 되어도 주민들과의 철석같은 약속은커녕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에 이르자 그때까지만 하여도 당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던 적지 않은 주민들의 실망은 어지간히 커졌다. 실제로 2012년 이후 더 이상 북한당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고향을 등진 탈북민이 적지 않다.

김정은은 2014년 5월 30일경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다소 개혁성이 있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국가가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공장 및 기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가 기관을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하여 출근하는 종업원들을 먹여 살리며 추가하여 국가에 계획 금액을 납입하도록 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국영의 공장 및 기업소를 사영(그렇다고 완전한 기업 자율화는 아님)으로 운영하고 국가에 일정금액만을 책임적으로 납입하면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국가로부터 기관으로 부여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배인과 당비서의 입장에서 원부자재를 전부 스스로 조달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및 기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는 갖가지 방법(편법 및 비법)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유치 대상은 개인들이다. 유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놓고 있는 공장부지를 몰래 파는(소유권을 이전하지는 못하기에 돈을 받고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것) 행위였다.

일례로 평양시 보통강구역의 전기 공장은 큰 부지에 들어앉은 제법 규모를 갖춘 공장이었다. 그러나 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니 종업원들이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일부를 떼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공장 구내에는 오토바이 회사, 중국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인 아이언 회사,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차량 수리 회사 등 갖가지 회사들이 들어와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부지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공장 구내에 들어온 아이언 회사는 다시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평양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그 젊은이는 당시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아이언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아이언회사는 그를 부원으로 임명해주고 팔도의 어느 곳이든 다 다닐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뒤 매달 1,000달러를 회사에 상납토록 하였다.

3. 월 해도 불법

그런데 문제는 공장과 개인 간에 작성한 계약서는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지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일쑤이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장부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자동차 명의는 당연히 공장의 것으로 된다. 공장부지도 이면적으로는 개인이 사게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공장의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언제든지 검열구루빠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인민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검열을 나오게 되면 위의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그

렇게 되면 개인은 고스란히 떼이고 빈털터리가 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큰 간부를 등에 업으려고 한다. 검열구루빠로 나오는 간부들을 잘 ‘삶아 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살아남고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정권 이후 공장과 공장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매일같이 피해를 당하는 개인들이 생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인들은 공장부지를 사는(실제로는 임대) 개념) 대가로 공장에 매월 혹은 연간 단위로 얼마씩의 돈을 낼 것이라고 약속한다. 문건(계약서)에 아무리 큼직하게 써넣어도 검열구루빠가 나오면 구루빠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시키는 것은 개인 몫이 된다.

상기 북한을 탈출한 젊은이는 아이언회사와 계약 후 약속대로 입사하였으나 검열구루빠에 단속되었고 결국 엄청난 뇌물을 주고 무마한 후 퇴사하였다. 그 후 그는 당구장사업에 뛰어들었다. 당구장 역시 놓고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를 개조하여 16개 정도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신 공장에는 매달 3,000달러를 들여놓기로 하였다. 다행히 그렇게 2년 가까이 당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 시내에 당구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평양 젊은이는 다음으로 신설 빵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빵을 만드는 빼어난 재

주를 가진 개인 사업가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그를 찾아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경쟁력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특허권을 뒀다고 보여줘 그를 신뢰하고 투자한 것이다. 평양에는 구역별로 3~4개 정도의 식료품회사들이 있다. 식료품회사가 생산하는 빵과 라면을 포함한 식료품의 일체는 백화점과 시장으로 납품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빵공장들은 거대한 식료품회사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다. 최근 평양에서는 중국산 식료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한 식료품에 대한 인기가 높다. 가장 잘 나가는 금컵식료품공장은 생산된 대부분의 식료품들이 백화점으로 납품하며 부유층들은 백화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다. 작은 빵공장들은 통일거리 시장과 같은 시장으로 나가곤 한다.

평양 젊은이는 1만 달러 정도를 3년간 투자하기로 하였고, 연간 30%의 이익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작은 개인회사가 연간 30%의 성장률을 낸다는 것은 기적에 불과하다.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4. 재미있는 건 ‘녹화물’시청 뿐

평양 젊은이는 북한사회에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일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남한과 미국의 ‘녹화물(영상물)’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갑갑한 현실을 살아가던 중에 집에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상물을 보는

것이 그나마 활기가 되고 동력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위가 높아져 특별히 ‘반국가범죄행위’로 규정된 국경연선을 통한 탈북시도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녹화물(영상물) 시청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실시한다. 북한 내에서 이러한 반국가행위는 사실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인 병리현상이다. 반국가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강도 높은 사상학습과 교양을 진행한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다. 1989년부터 북한사회에 침투되는 ‘제국주의 사상문화 봉쇄’정책을 비롯 기라도 하듯이 근절되기는커녕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7년, 김정은은 주민들의 ‘반국가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교양’으로 해결될 시기는 지났으니 가차 없이 ‘처리’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시 말해 북한 젊은이들에 대한 교양은 이미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의 교양은 필요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반국가행위 범죄자들에 대해 종전의 교양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사형, 정치범수용소 감금, 교화소 감금, 노동단련대 강제 노동으로 종용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마약판매나 흡입과 같은 강력범죄는 일반범죄로 보고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정도로 그치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녹화물을 접하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로 구분되어 심하면 사형에, 경하면 정치범수용소 감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녹화물도 중국의 것은 경하게 처분 받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것은 심각하게 처리된다.

그럼에도 평양과 지방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녹화물이 4,000편 이상, 미국의 녹화물은 2,000편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2012년 후에 제작된 것으로 10년 이내의 영상물들이다. 미국의 녹화물은 남한에서 방영된 것으로 자막처리되어있어 시청에 장애가 없다.

2016년에는 16부작으로 편성되어 방영된 ‘태양의 후예’가 방영 1개월 만에 평양 시내에 확 유포되었다. 평양주민들 속에서는 ‘태후’의 명대사를 모르면 ‘뒤쳐진 사람’으로 취급되면서 그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었다. 이에 약이 오른 김정은은 보위부에 특별지시를 하달하였는바, 한국 녹화물에 대한 시청 및 유포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뿌리 채 근절하라는 내용이었다.

평양을 탈출한 젊은이도 더 최신의 녹화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곧 권력을 드러낸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영상물로 500편, 미국의 것은 300편 정도를 기가바이트의 메모리에 저장해 소장하



북한 청년세대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¹

이 시 효 박사 (송실대학교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폭력의 두려움에 휩싸인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말한다. “사람이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준 데에 연유하고 있는 거야.”²

북한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폐쇄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는 나치 시대만큼의 열성은 없더라도 몇 세대에 걸쳐 몸과 사고에 축적된 ‘굴종’의 시간이 있다. 북한의 지배는 “죽음의 공포”를 동력으로 작동되며,³ 주민들의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배자에게 온전히 빼앗겼다. 그들에게 “몇 입방 센티미터 해골 속 이외에는 자기 자신이란 것

이 없다.”⁴

1990년대 북한의 아사와 시장도입은, 견고해 보이던 이 세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다른 시각에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본능처럼 인간 안에 내재 되어있는, “해골 속”을 넘어 “자기들만의 은신처를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⁵이 통제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싹을 틔운 것일지도 모른다. 이글은 그 ‘틈’과 ‘싹’을 바라보는 시도이다. 그리고 그 싹은 연하고 새롭게 자라나는 청년세대의 의식변화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변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표현은 이제 새로움

1 이 글은 필자의 다음 논문의 주요 논지를 글로 풀어썼다. 이시효·김성배·김명희, “평양 청년세대 이중 의식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6(2), 2022. 113-145.

2 헤르만 헤세. 『데미안』. 학원사. 1987. 49쪽.

3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전체주의의 기원 1』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06.

4 오웰, 조지(Orwell, George), 『1984』. 민음사. 2006. 42쪽.


5 오웰, 조지(Orwell, George), 『1984』. 196쪽

고 있다.

2020년 12월 김정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내놓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향해 총을 쓰고 있다. 드라마 1편을 보면 교화소 1년, 2편에는 2년인데 10년이면 총살이다. 드라마의 특성상 한두 편 보고 그만두지 못하기에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이 속출하였다.

“오빠”금지법은 유명하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오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남한 영상물을 많이 보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한 북한당국의 조치이다. 그런가하면 남한드라마에서 나왔던 등장인물들의 이름 리스트를 정리해놓고 젊은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면 이름을 대조한다.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돌려보내 새로운 이름

을 짓게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한다.

오늘도 북한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북한 젊은이들은 ‘고난의 행군’의 악몽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당과 수령, 그리고 국가가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고 방기한다는 것을 절감한 세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오로지 ‘돈에 대한 욕구의 전면화’였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뇌물문화는 그들을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열 차게 내몰고 있다. 젊은이들의 고달픈 일상을 달래줄 유일한 탈출구는 영상물에 대한 시청일 뿐이다. 

을 넘어 진부한 문장으로 들리며, 변화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접근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자. 변화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얼마나’에 대한 비교 경제연구에서 북한의 변화는 명백해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개혁 조치는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시장화’라는 조정 메커니즘뿐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영역의 변화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⁶ 더욱이 김정은 시대 경제 개혁적 성격은 미시적 부문의 개혁, 시장의 지위 및 제도화 수준, 시장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보다 강화되고 있다.⁷

하지만 정치를 중심으로 한 반대편 주장은 ‘김정은 정권의 시장 이용 전략’은 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권력과 시장 이용을 통한 엘리트 계층의 경제적 착취는 지배를 오히려 공고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렇다면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진짜’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답은 단순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장마당에서 자라난 청년세

대에게 물어봐야 한다. 청년세대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변화 중인 세계에 쉽게 적응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북한의 기성세대가 의식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에서 태어난 청년세대는 이데올로기와 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의식을 ‘형성’한 ‘새로운 세대’인 것이다.

‘청년세대’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새 세대’ 연구를 넘어 ‘주류 세대’라는 측면이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1994년에 의식이 성장하는 14세가 되는 청소년, 즉 1980년 이후 출생자는 이미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58.7%)다.⁹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 성장과 함께 ‘의식구조’가 ‘형성’된 세대가 이미 북한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한 사회의 주축으로 부상할 것을 말해준다.

이 글은 북한의 청년세대 의식변화에 초점을 두고, 평양을 이탈한 청년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새로운 세대, ‘사상’보다 ‘느낌’

태양절 김일성 광장의 행렬을 단순히 “꼭두각시 인형들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들”¹⁰로 보기는 힘들다. 청년 E의 증언처럼 “고난의 행군 시대 때, 거기서 살아남았으니”

8 만하임, 카를(Mannheim, Karl), 『세대 문제』, 이남석 옮김(서울: 책세상, 2013). 59쪽.

9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 (2021년 12월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lId=DT_1ZGA261&conn_path=I3)

10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전체주의의 기원 2』 이진우 옮김(서울: 한길사, 2006). 246쪽.

체제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고, 정부의 규율을 어기고 “장마당 나가서 뭘 하든 팔든지 사든지 그걸 해야지 살아” 남은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다. 그의 생각에 기성세대 80 퍼센트 이상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 알건 다 아는데” 단지 “그걸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친 아버지 세대는 “자발적인 게 좀 있었다”면, 북한 청년세대에게는 “이 자발적인 게 없다”(C). 기성세대가 체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적, 개인적 사고를 행동할 때 내면 깊이 각인된 ‘사상’이 그들의 뒷덜미를 잡고 설명하기 힘든 꺼림칙한 기분을 주는 것과 달리, 시장에서 성장한 청년세대는 몸의 욕망과 살아있음의 ‘느낌’을 쫓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달의 여인〉, 그게 처음 봤던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 내용도 좋지만, 또 노래가 좋아가지고... 이 발성은 약간 사람을 홀리는 발성이다 보니까. 한국 노래들은 다 그런 약간, 마음을 녹이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북한에서 왜 막는지 알겠다. 필사적으로 이거 가지고 해보는지 알겠다’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C와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한국 영상과 음악을 ‘욕망’했다. 하지만 그들이 영상과 음악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의 진실이 아니다. 그들 우선 원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

는 ‘사랑의 감정’, ‘인간적인 느낌’,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다. 그들은 한국 영화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OST나 음악을 즐긴다. 그들은 한국 영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식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싶은 것이었다. 한국 영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에 가까우며,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A)”, “빠져드는(B)”, “사람을 홀리는(C)”, “환장하는(D)” 느낌을 받는다. 북한의 청년세대는 영상에 나타난 한국 도시 배경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¹¹ 처음 경험해 보는 “인간적인 느낌”, “부드러운 느낌”, “살아있음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에 놀란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달리 북한 청년세대는 ‘사상’이 뒷덜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천사’처럼¹² 과거의 잔해(기억과 사상, 공간과 물질) 사이로 살아있음을 욕망하며 그 ‘느낌’을 따라 미래로 떠밀려가고 있다.

북한 청년세대의 특징, ‘이중’ 사고

평양 청년세대 의식변화의 핵심은 “자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말살” 시키며 “알면서 모르는 척”,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이중사고’이다.¹³

11 B의 증언에서 “김정은 시대 평양은 서울보다 더 멋있”게 보인다고 증언했다.

12 벤야민, 발터(Benjamin, Walter).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옮김(서울: 민음사, 2006). 348쪽.

13 오웰, 조지(Orwell, George), 『1984』, 295쪽.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군이 경계근무 중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장면.〉

이중사고는 단지 권력자의 보복이 두려워 그러는 척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루에도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는 대도시 시민들이 타인에 대한 '둔감함'으로 신경과민을 피하듯이,¹⁴ 막연하게 진실을 알아버린 청년세대는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중사고를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그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순간 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진

짜 반감이라기보다도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관심이 없는 건가요, 스스로 차단하는 건가요?) 차단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잠시 생각) 아니 그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하게 그냥 다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C와 인터뷰)”

북한 청년세대는 정치적 의식보다는 ‘느낌’을 쫓아간다. 육체적 느낌에 민감한 그들은, 더욱이 그렇기에 사상적 속임수에 쉽게 속지 않는다. 그들은 “당은 정복될 수 없는, 영원한 존

재”임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당의 선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¹⁵

의식의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중적 삶을 매일 경험한 청년세대에게 ‘이중사고’는 갈등이라기보다 일상이다. 때로 그들은 이중사고를 받아들이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을 ‘스틸’처럼 즐긴다.¹⁶

소비에트 붕괴 직전 청년들이 정치적 저항 없이 청바지와 ‘락’을 즐겼듯이,¹⁷ 북한 청년세대는 정치적 의식이나 저항 없이 한국 영상과 스타일, 말투를 즐긴다. 설혹 정치적으로 비판의식을 생각한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기(C)”에 그들은 정치적 의식 성장을 스스로 막는다. 더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그 억지 충성심이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되어야(A)” 하기에, 정치적 비판의식을 품는 것은 ‘진실한’ 연기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위험하다.

하지만 청년세대 모두에게 이중적 삶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지는 않는다. E에게 이중사고는 “엄청, 짜증”나고 “혼란”스럽고 “감정이 모순”되는 갈등의 근원이었다.¹⁸ 길거리와 공원, 공적인 자리, 완전히 사적이지 못한 어느 공간에

도 이 ‘이중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스치듯 그 존재를 드러낼 때, 즉 그들의 무의식 행동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찰나 어디에나 만연해 있는 ‘이중사고’는 모습을 드러낸다. ‘사상교육’과 ‘일상’이 분리된 이중적 사고를 넘어 때때로 그들은 “존재의 지각”을 통해 제3의 관점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근데 (김정일 운구)차가 (평양 거리를)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운단 말이에요. 울고 막 차 따라가고 했었는데.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덟 명, 열명 정도... (한데)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걸어 가더라고요. 돌아서서. 그때 약간 좀 별난 감정이 들었죠. ‘그냥 끝났니까 돌아서서 다 가네.’ 막 그 영화 장면 같은 게, 약간 그 “좀비”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C와 인터뷰)”

그들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데미안은 회답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있다면, 시간이 된다면, 병아리는 가르침이나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다. 북한 청년세대의 ‘이중’ 사고는 전체주의 세계에

14 짐멜, 게오르그(Simmel, Georg),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서울: 새물결, 206). 41쪽.

15 오웰, 조지(Orwell, George), 『1984』 217쪽.

16 “지금 생각해 보면 스틸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내가 분명히 뭐 못 사는 집인데 잘 사는 집 애들하고 같이 학교에 다니는. 그 자체가 스틸 있다고 해야되나, 정체를 숨기고. (A와 인터뷰)”

17 유르차, 알렉세이(Yurchak, Alexei),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422-430쪽.

18 “사는 데 딱히 지장이 없던데 그래요. 예를 들어 TV에 이런 게 나와요. 김정은 자라 공장 현지 시찰했다. 엄청 이제 ‘우리 인민들한테 자라 먹인다’하는데, 우리한테 안 오잖아. 자라가. 어차피 안 올 거잖아. 그런데 왜 나오냐고. 뭐 그렇다고 내가 그걸 나왔는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 어차피 나한테 안 오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야. 어릴적에는. (E와 인터뷰)”

북한 청년세대에 대한 외부문화 통제 실태와 배경

전 일 구 박사 (연세대 통일학)

한때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한류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북한 청년들이 몰래 시청하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영상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서 판매한 사람은 총살형, 이를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 그리고 단순히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다.¹ 한편, 북한 삼지연 지역의 운동선수 20여 명이 훈련 도중 오락시간에 말꼬리잇기(끝말잇기) 놀이를 하다가 남한단어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 3-5년의 노동교화형 선고를 받았다.²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처벌받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거나 북한 사회를 비판한 것이 아닌, 젊은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그들의 문화 환경이 처벌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콘텐츠 산업과 이를 전달하는 IT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북한 내부에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콘텐츠가 대량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UN 대북제재나 코로나 19 팬데믹 때와 같은 봉쇄 수준의 방역 체제에서도 그 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북한 청년들도 어렵지 않게 외부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북한 당국은 2020년에는 외부문화의 유입을 통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리고 2021년과 2023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제정을 단행하였다. 최근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전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법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기본적인 자유를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동원하는 비인격




‘특’하고 금을 내었다. 하지만 스콧의 주장처럼 그들의 수군거림, 일탈, 소문, 폭력, 쾌락, 사적 모임이 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984〉 런던에서 ‘당이 빈민가의 매춘을 무산계급 노동자의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분출구로 암암리 장려’했듯이 ‘이중사고’는 진화한 전체주의 지배의 새로운 전략인가?¹⁹

북한 지배층은 분명 청년세대 이중사고를 전략적으로 포섭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몸의 ‘느낌’을 통해 각인된 인간의 사고는 뱀의 미늘처럼 뒤로 후퇴하기보다 앞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북한 청년세대에게 사적 욕망의 사고와 행동은 단순한 억압의 분출이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는 주체적 행위이며, 당의 명령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일상의 경험이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일탈과 수군거림은 ‘물줄기가 댐에 압력을 가하듯, 지배계급에 압력을 가해 시민들의 행동에 대한 허용 수위를 계속 높여 갈’ 것이다.²⁰

북한 사회가 무언가 행동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쾌락을 원한다. 그런데 ‘그들’, 즉 당은 그것을 못 갖도록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당의 규칙을 깨뜨려야 한다”²¹는 단순한 논리에 따라 가능성이 크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새로운 탄생이 이 시작을 보장한다.²² 북한의 변화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 곧 이중사고를 넘어 ‘살아있음’을 욕망하는 청년세대에 있다.

”그래서 무슨 사랑도, 뭐 누군가를 위해서, 최고 존엄을 위해서, 어쨌든 당과 수령을 위해서, 한 사람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한 여자를 서로 사랑하는 거지.(웃음) 모든 건 다 그렇게 되고. 모든게 다 싫었던 거지. (D와 인터뷰)“ 

20 스콧, 제임스(Scott, James C.),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대본』, 후마니타스, 2020.

21 오웰, 조지(Orwell, George), 『1984』 186쪽.

22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전체주의의 기원 2』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06.

19 이 질문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가져왔다. 이시호·김성배·김명희, “평양 일탈공간 연구: 대동강구역 욕망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4(1), 2022. 73-110.

1 “북, ‘오징어 게임’ 시청 학생들에 중형 선고”, RFA, 2021년 11월 23일.

2 “북 운동선수 등 20명, 오락회사 남한말 쓰다 노동교화형” RFA, 2023년 4월 7일.



〈평양 유경정주영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을 하고 있는 모란봉 악단의 모습〉

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³ 그렇다고 이러한 법이 북한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다. 이미 북한은 남한의 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면 '반동선전선동죄', '국가전복음모죄'와 같은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었고,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북한 형법 제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관련 사항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은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청년세대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문화의 통제를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추진하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후계자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북한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즉 이 짧은 후계자 훈련 기간은 김정일 시기의 기존 기성세대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정은

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에게는 '김일성 따라하기' 전략을, 다음세대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문화 유화정책을 시도하였다. 특히 김정은의 문화정책은 김정일 시기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

적인 부분이 돋보였다. 그 선봉은 '모란봉악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공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현란한 연주곡, 무대장치, 선정적인 무대 의상 등을 선보였다. 또한 그동안 반미 감성으로 미국과 관련한 콘텐츠를 금기시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공식 공연 예술분야에서 백설공주, 미키 마우스 등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캐릭터와 영화 '록키'의 주제를 사용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식의 세계화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모습들도 보여주었다.⁴ 나아가 북한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스키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유흥시설 또한 북한의 척박한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추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소년단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음세대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고, 청년동맹 대회

도 집권 후 2차례나 개최하는 등 아버지 김정일과는 차별화 한 스킨십 전략으로 그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정은 집권 이후 공을 들이며 쌓은 자신의 지지기반 핵심세력인 청년들에게 외부의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해서 그 충성심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가운데에서도 청년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 또한 김정은이 문화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소련이 붕괴되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청년들의 의식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1925년부터 1935년 사이, 소련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청년이 되어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강력한 공포정치를 펼쳤던 스탈린이 한순간에 독재자와 악인으로 격하되는 모습을 본 소련의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문화적 자유와 사회 정의 등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이 되어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스탈린주의의 병폐를 비판하며 고르바초프의 체제 개혁 정책, 즉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를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지켜본 북한은 흐루시초프의 격하 운동이 반혁명적인 책동으로 그와 그의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들로 인해 공산주의 국가들이 힘든 시련에 빠지게 되었다고 평가하

였다.⁵ 소련을 필두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청년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입되는 정보에 영향을 받아 민주 사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청년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변혁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동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청년 지식인들이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폴란드에서는 청년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 미래마저도 불안하다고 판단하여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이런 대규모의 엑소더스(Exodus) 이전에 1977년 '학생 соли다리티 위원회'(Students' Solidarity Committee: SKS)가 결성되어 학생들이 주요 활동 세력으로 폴란드의 인권과 검열, 탄압에 대한 규탄 활동을 전개한 바 있었다.⁶ 체코에서는 1988년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 침공 20주년에 체코의 청년들이 수만 명의 시위와 행진에 참여하면서 반정부 단체와 접촉, 학생들의 점거 농성, 전국적인 총파업 호소 등의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되었다.⁷ 한편 헝가리에서도 혁명이 이어졌는데, 이 혁명은 민주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이 아닌, 항의와 양보의 융합을 통한 문화

3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첫 공개...국도의 주민 통제" VOA, 2023년 3월 22일.

4 북한연구학회(2015), 『김정은 시대의 문화』 p.43.

5 김종수(2018), 『북한 청년과 통일』 pp.34-35.

6 김종수(2010),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동유럽 사례와 비교", 『평화학연구』 11(1), p.120.

7 앞의 책, p.119

적, 제도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조금 달랐다.⁸ 이 헝가리의 민주혁명은 젊은 청년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밀로부터’의 형성된 단체였으며, 청년과 학생들이 자율적 ‘청년민주주의자동맹’(Fidesz) 조직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주도적인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이렇게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청년들이 주축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서는 당시 소련이 붕괴의 조짐이 있었던 것도 큰 영향이 있었지만, 이 청년들이 외부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루마니아는 RFE(Radio Free Europe) 라디오 방송으로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나 정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는 데에도 RFE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이러한 외부정보의 유입은 청년들에게 일상의 고통을 벗어나고 그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중요한 수단이었다.⁹ 이런 서구 자본주의 문화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경제나 사회에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돕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흥미를 강하게 끄는 마약과 성 관련 영상 등 일탈적 요소가 담긴 대중문화의



〈1989년 11월 프라하 도심의 시위대 (사진=위키피디아)〉

전파속도가 가장 빨랐다.¹⁰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정제되지 않은 문화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쳐있던 젊은 청년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호기심이 증폭되어 더욱 빠르게 확산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필사적으로 청년들의 문화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에서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 해 보인다. 아직은 이런 외부문화의 확산이 북한 정권을 흔들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외부문화에 노출되어 주체사상이 흐려지는 현상이 심해진다면, 루마니아의 청년들이 RFE 방송을 통해 반정부의 시위를 결집시키는 동력을 얻었듯이, 북한 청년들 또한 북한 당국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 가운데, 김정은은 자신이

10 김병로 외(2018), 『脫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pp.232-233.

금지한 외부의 콘텐츠를 청년들이 접할 때마다 처벌의 수위는 계속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청년의 관심을 이끄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처벌’과 ‘포용’이라는 양면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 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처벌을 단행하는 한편, 그 통제에 따르는 북한 청년들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선전선동의 소재로 삼는 메시지와 정책들을 함께 나타내야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보 제한이라는 시대를 거스르는 이런 통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북한이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세대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세대는 1994년 전후에 출생하여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검열된 정보에 노출되어 자라온 세대들로 현 20대를 지칭한다. 즉, 중국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청년들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중국 정부 통제 정책에 순응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이며 성장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를 하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중국 정부에 충성하고 있는 만리방화벽 세대들은 서구의 부정확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서 걸러주고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의 온

라인 통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¹¹ 이에 북한 당국은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세대를 북한 청년들에게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대내외적으로 늘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정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대내적으로는 기존 김정일 시기 때의 기득권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새로운 지지세력을 세우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고 강대국들과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북한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지금의 폐쇄적인 상황을 돌파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통한 개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점이 바로 북한 외부의 자본주의 문화가 급속하게 북한 내부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를 북한 당국에서 얼마나 통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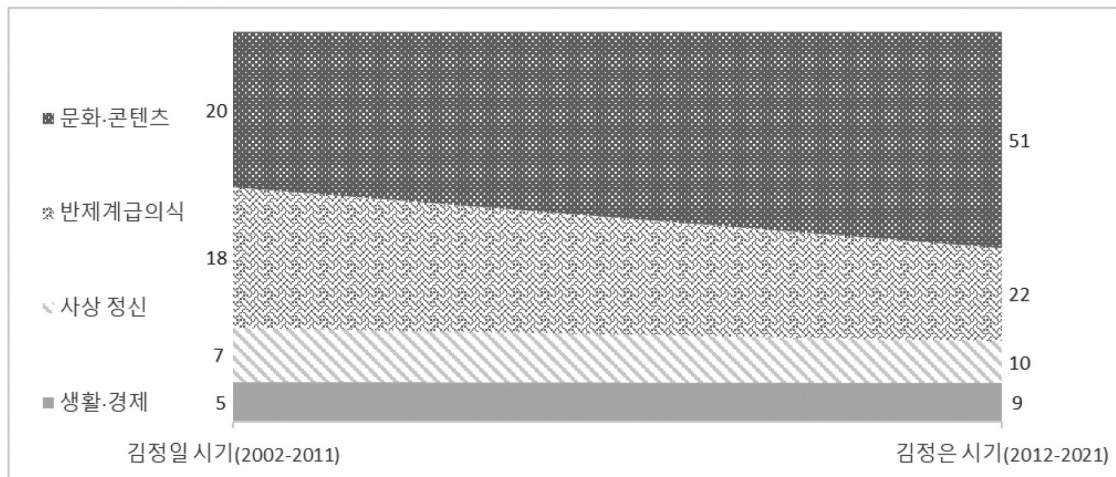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이 반동사상이라고 일컫는 외부문화가 북한의 정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다면 법의 제정이 아닌, 군대 동원 등의 물리적인 통제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김정은 집권 후 최근까지 북한 청년 대

8 전태국(1998),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pp.66-67.

9 Kim, Eui Gyeong(2020) 「A society of no popular resistance : How Kim Il Sung created one when communist Albania and Romania could not .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Ph.D.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p.201-203.

11 “미래 인터넷 환경… ‘중국 vs. 서양’의 디지털 냉전 시작되나”, koreanherald, 2020년 11월 21일.

〈그림〉로동신문에 나타난 청년대상 반동사상문화 메시지 종류별 기사 수 변화



주: 전일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 인식과 대응: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청년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2022), p.72.

상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등장은 이런 김정은의 위기감을 방증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그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어느 국가에서나 청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북한 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북한 청년들이 사회주의 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청년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갈망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시도 또한 어떤 강압적인 통제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넘어 앞으로 AI 산업 등의 발전으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시대에, 북한의 청년들은 북한 당국

의 통제에 순응할지, 아니면 이런 통제에 반발하여 북한 청년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을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

탈북민 수기

이끄심

5화 - 🐼야샤브: 거류하다

김서윤 전도사

은명이(가명) 이모 덕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생활은 정리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었다. 어머니는 이모에게 길림시에 있다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고 있다고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런데 길림시에는 한국 영사관이 없고 베이징에 가야 한다고 했다. 기껏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길림에 도착했던 99년 초에는 동북 지역에 한국 영사관이 없었고, 그 후로 몇 개월 뒤에야 심양(선양)에 영사관이 개설되었다.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우리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길림시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왔던 것이다.

우리는 한국행을 위해 베이징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 곳에 가면 당연히 한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다 들으신 은명이 이모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먼저 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

다. 그동안의 여정이 너무나 고달프기도 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베이징에 가는 것은 분명 위험할 것이라는 의견이셨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베이징 방문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베이징에 가신 어머니께서는 그 곳 상황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다고 느끼셨다. 베이징 대한민국 대사관 근처는 공안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기웃거리거나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단번에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간 그 주변을 배회하던 어머니께서는 베이징 보다는 제3국, 베트남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셨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음 목적지를 정하신 어머니는 길림으로 돌아온 후 베트남으로 갈 준비를 마치셨다. 가족 모두가 함께한 이번 여정은, 감사하게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은명이 이모의 도움이 매우 컸다. 덕분에 우리는 순조롭게 중국 남부의 남녕(난닝)



〈베트남 몽카이 시와 중국의 동성 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베이룬 강 (사진=트립닷컴)〉

시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남녕시의 첫 인상은 매우 강렬했다. 찜질방 같은 무더위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베트남에 가보니 베트남도 남녕시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베이룬강(Beilun River, 北隴河)을 건너야 했다. 또 다시 강을 건너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도강(徒江)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 따라다니는 듯 했다. 관광객처럼 위장하고 베이룬강 지역을 관람하는 쪽배를 하나 섭외했다. 그러다 한적하고 외진 곳에 다다랐을 때 배를 운전하는 아저씨에게 우리끼리 구경하고 싶다며 돈을 주고 빠져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베트남 땅에 발을 내디뎠고, 잘 닦여있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

럽게 들리더니 순식간에 총기를 든 베트남 국경 수비대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강을 넘어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꼼짝없이 베트남 국경 수비대에서 취조를 받아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호통을 치고 욕박질러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척 해야 했고, 절대 중국인이 아니라고 우겼다.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기며 한국 영사관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여권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다고 둘러대었다. 베트남에서의 취조의 과정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상당히 진전이 더뎠다. 중국말이나 한국말, 영어 모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던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찍고, 우리의 한국 집 주소를 적어내라고 했다. 당연히 한국에 집이 없었던 우리는 은명이 이모가 주셨던 한국 화장품 샘플에 적혀 있는 화장품 제조사 주소를 적어 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오직 대한민국에 가기 위한 일념으로 모든 고통과 수모 그리고 어려움을 견뎠다. 그렇게 산속에 있는 국경수비대에서 한 달 넘게 생활을 하고 도시와 가까이 맞닿은 본부에서 약 2개월 동안 생활하였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도 몇 마디 익히게 되었고, 안면을 튼 베트남 군인들도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태도로 우리를 대하게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

려왔다. 나와 엄마는 그들의 안내에 따라 국경 수비대 대령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수화기를 전해 받았다. 나는 단번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온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설레고 기뻐던지 쿵광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다. 그렇게 조심스레 어머니는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먼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정상 탈북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오시던 길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내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이미 전화기에서는 “뚜, 뚜, 뚜” 하는 기계음만 흘러나올 따름이었다. 갑자기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았다.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 같았고 하루가 1년 같이 느껴졌다. 한국에 가겠다는 희망을 품고 먼 길을 돌아온 우리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거부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24시간 안에 북측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을 버리고서라도, 그날 밤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단했다. 모두가 잠든 밤 12시쯤이 기회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일찍부터 방에 불들을 소등하고 보초 서고 있는 경비병이 자리를 비우기만 바랬다. 이윽고 둥근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밤이 깊어졌다. 마침 늘 성실히 자신들의 임무를 다 했던 경비병이 그때만큼은 마치 우리에게 도망갈 기회라도 주는 마냥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이때를 틈 타 시설을 탈출했다. 그리고 처음 강을 건너 왔던 산 너머 강변을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뛰었을까? 저만치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비 대원들이 추격해 온 것이었다. 동남아의 우거진 숲들과 가시 덩굴을 헤집으며 군견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듯했다. 온 몸이 가시에 긁혀가며 우여곡절 끝에 처음 출발 지점이었던 베이룬 강변에는 도착했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음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강의 모습이었다. 3개월이 다 되도록 그곳 베트남에서 우기를 보냈던 지라 그 사이 강물이 크게 불어나 있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대로 있다가 잡힐 수는 없으니 우리는 결국 넘실거리는 강으로 들어설 결단을 했다.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평소 가방에 챙겨두었던 밧줄로 황급히 서로의 몸을 묶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절대 물 마시지 말고 발버둥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뜬다고 신신당부하셨다. 마

침내 우리 가족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현실적으로 거센 물살 속에서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긴 상태로 반대편으로 떠내려가려고 애썼다. 강물에 삼켜지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데 그 와중에 오토바이 소리와 군견들이 짖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우리는 사투 끝에 새벽이 밝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에야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다행히 다치거나 물살에 휩쓸린 사람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무사히 탈출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실망과 절망감은 너무 컸다. 뚜렷한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강을 넘어온 우리는 이제는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일단 우리는 길림으로 발길을 돌렸다.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한국행을 바라던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꺾여버렸다. 무엇보다 북한에서부터 목적으로 삼았던 한국행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그라졌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북한도, 남한도 갈 수 없으니 중국에서 잘 살아 보기로 결심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중국 땅이지만 당장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길림시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사실 그 도시도 여정 간에 잠시 머물던 곳에 불과했으니, 우리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

얼마동안은 길림시 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는 송화강(松花江)¹ 다리 밑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낙심은 컸지만 중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다행히 은명이 이모네 식당에서 일을 하였던 주방 큰어머니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자신의 집에 와 있으라고 해 주셨다. 어머니는 침과 땀을 내놓을 줄 아셨는데, 평소 관절이 안 좋으셨던 큰어머니가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시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록 나무로 불을 때는 단칸방의 작은 집이었지만, 당장 이 몸 하나 덥혀줄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머니와 주방 큰어머니는 낮에 일하러 나가셨다. 불법체류자인 우리 남매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까봐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2명 이상 되면 중국정부가 단속도 했고, 평생 벌금과 함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월급까지 삭감시키는 어마무시한 정책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나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까지 뿔뿔이 흩어져 할 상황에 놓였다. 우리는 당연히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우리는 주로 뒷산에 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놀다가, 해가 질 때 짙은 짙감으로 쓸 죽은 나무나 떨어진 가지들을

¹ 길이는 약 1,960km, 백두산 천지 비룡폭포에서 시작해 길림성과 흑룡강성 지역을 흐르는 강.

모아서 주워서 내려오곤 했다.

낮선 이국땅에서의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우리를 도와주신 여러 은인들이 우리 가족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한 은인 중 팡즈 이모는 어머니가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조선족 버스운전사였다. 중국말을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시골에서 온 조선족인줄 알고 말을 걸어 오셨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팡즈 이모는 처음에는 북한사람을 도왔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셔서 어머니를 외면하셨지만, 나중에 나와 동생들을 보시고 마음이 녹으셨는지 우리 가족을 많이 보살펴 주셨다. 처음 우리 남매들을 보시고는 우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던 팡즈 이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팡즈 이모는 지인이 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알아봐 주셨다. 그곳은 노래방이 딸린 2층짜리 카라오케 식당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낮에는 주방에서 커다란 접시를 닦았고, 손님들이 다 나간 밤에는 청소를 담당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는 절때 홀에 나가지 않았다. 식당주인이셨던 아주머니는 그런 나를 안쓰러워하셨고 늘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해주셨고 가끔은 방에 가서 쉬라고 편의도 봐 주셨다. 나는 그곳에서 재워주고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감사했기에 누구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그곳에는 지방에서 올라오

셔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많았고, 식당 뒷편에 있는 직원들 숙소가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한달을 지냈다. 그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가 너무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고단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는 늘 몰래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린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나를 대견해 하면서도 늘 위로해주셨던 건 팡즈 이모셨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모의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집을 열어주셨다. 팡즈 이모의 집은 내 맘에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이런 안식처가 없었다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던 중국에서의 생활을 어찌 견딜 수 있었을까.

한편 우리 가족은 불법체류자로서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 이모들은 항상 우리 집이 애들이 많다고 걱정을 하셨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2~3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 있다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 신고 대상이었다. 그래서 한 명은 기숙학교로 보내야 서로가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여자보다는 남동생이 씩씩하게 혼자서도 잘 지낼 것이니 남동생을 기숙학교로 보내라고 엄마를 재촉하곤 했다. 남동생은 결국 가짜신분을 만들어 다른 도시의 기숙학교로 보내지게 되었다.

여동생도 감사하게도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활력을 되찾으신 주방 큰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생

명의 은인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여동생의 총명함을 보고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친척에게 여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여동생은 주방 큰어머니의 친척집에서 지내며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서로 이해해주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여동생이 없으니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실제로 여동생이 없는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방학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여동생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보며 부러움과 약간의 질투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동생도 나름대로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혼자 공부하며 쓸쓸히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고 여동생과 헤어지기가 더더욱 싫었다. 그래서 하루는 큰어머니와 어머니를 붙잡고 우리를 갈라놓지 말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더랬다.

아무래도 어린 동생들에 비해 나이가 있다 보니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는 분을 통해 한 조선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받으셨고, 교장선생님 방으로 찾아가 몇날며칠을 무릎을 꿇고 여동생과 나를 수업만 듣게 해달라고,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든 감당하겠다고 간청하셨다. 교장선생님은 난색을 표하셨지만, 우리 가족의 딱한 사정과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해 주셨고 그

렇게 나의 최대 소원이었던 여동생과 함께 학교를 갈 수 있었다. 소학교 1학년을 마친 여동생은 2학년으로, 나는 처음부터 5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나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해서 수업만 되면 즐기 일쑤였다. 그나마 예체능 과목은 따라갈 만했지만 한어(중국어 국어) 수업 시간만 돌아오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 말에 엮드려있기 십상이었다. 답답했던 담임 선생님은 내 자리를 전교1등 하던 친구인 환우의 옆자리로 옮겨주셨다. 환우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가 숙제를 하도록 옆에서 보채다가, 나중에는 답답했는지 내 숙제를 대신 해주기 시작했다. 사실 환우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해주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사먹을 여건이 안 됐던 나는 늘 운동장 한켠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로 들어오곤 했다. 한 번도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것을 본 적이 없는 환우는 내가 늘 굶는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하루는 자기 어머니가 싸 주신 3단 도시락을 나에게 통으로 내어 주기도 했는데, 나는 또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가져오다 도시락 국물이 가방에 흘러서 책이 다 젖은 적도 있다. 처음에는 나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자기 도시락까지 건네주는 환우에 대해 미안함은커녕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지만, 환우가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공부를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알아듣지 못하니 한어 교과서를 통으로 외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리의 호적에 해당하는 중국 호구〉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저런 주변의 도움과 나의 노력까지 더해져 나중에는 중국어를 상당 수준으로 흉내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공부에 힘쓰기 시작하며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일부터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어떤 위험을 감지하셨는지 갑작스럽게 이사를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 가족은 얼마 후 한 시골 조선족 마을로 이사를 갔다. 시골로 옮기면서 어머니는 그간 모아놓은 돈을 털어 가족들의 가짜 호구를 만들었다. 이제 가짜이긴 하지만 호구가 생긴 덕분에 문제없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여동생은 체계적으로 학교를 꾸준히 다녔지만, 나는 또 월반에 월반을 걸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엔 충실했고 여동생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중에 나는 시골학교에서 반장을 했고, 여동생은 전교회장까지 할 정도로 공부나 여러 방면에서 우수했다.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은인들의 도움과 어머

니의 헌신 덕분에 우리의 중국 정착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몇 년간의 수고 끝에 이제야 그곳에서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볼 만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혼돈 속에 빠뜨릴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음을 그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계속)

북, 첫 고체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은 무산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 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화성-18형 시험 발사 시각과 장소, 비행거리, 최대 고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시험발사 모습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기존 액체연료 ICBM보다 발사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첫 시험발사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5대 과업의 하나인 '1만5천km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고체연료 고도화와 단 분리 기술 정교화 등을 위해 화성-18형 미사일의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연료 주입에 최소한 15분~수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액체연료로켓 엔진에 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ICBM은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그런 까닭에 유사시 북한이 이를 통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해당 발사 징후를 탐지·요격하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그렇지만 비토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북한을 두둔하고 나섬에 따라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참고: 연합뉴스, 4월 14일 외 언론 보도 종합) 🐼

북한, 중국 상대 개성공단 투자유지 활동... 대통령실 "제재 위반"



〈지난해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개성공단 통근용 추정 버스(연합뉴스=조선중앙TV)〉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4월 20일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유치) 등 정보 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 측에 넘기거나 중국 업체가 원하는 물품을 하청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내 산업투자, 합작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투자 이전)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고해 왔다. 4월 1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에서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연합뉴스, 4월 20일 외 언론보도 종합) 🐼

북중 교역액 6개월 연속 1억 달러 돌파... 3월 북한의 쌀 반입량은 2배 이상 증가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에서 쌀 4만6000톤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과 중국 간 월간 교역액도 6개월 연속으로 1억 달러(1332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4월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최근 발표한 북·중 무역 세부자료에서 쌀을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으로 집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단립종 2만6215t과 장립종 2만546t 등 총 4만6761t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는 지난 2월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간 장·단립종 쌀 수입량 1만8785t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다.

북한은 장립미 또는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을 지난해 10월 처음 중국에서 수입한 이후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 VOA는 북한이 쌀 수입에만 2000만 달러(약 266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식량난과 연관성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북·중 간

무역총액은 1억5845만 달러(약 2111억원)를 기록했다.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열차의 운행이 재개한 지난해 9월 이후 양국 간 월간 무역액은 6개월 연속 1억 달러(1332억 원)를 넘기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나선특별시와 지린성 훈춘(琿春)시를 잇는 취안허(圈河) 세관에서 트럭 통행을 2년여 만에 재개하는 등 양국 간 본격적인 교역 재개를 대비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다시 중국으로 넘기는 주문자생산방식(OEM) 산업의 재개 정황도 관찰된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인 손목시계와 신발, 가발, 속눈썹 등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렸다. 실제 북한에서 역외가공 형태의 무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었다.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796만 달러, 약 106억원) 역시 가발·인조속눈썹 제품인데, 전체 대중 수출액인 2055만 달러(약 274억원)의 약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멈췄던 OEM 생산을 재개한 것인지 주목된다는 게 VOA 측의 분석이다. (참고: VOA, 4월 22일) 

북한, 다산 여성들에게 훈장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고심



〈평양산원에서 탄생한 500번째 세쌍둥이 (사진=KBS 남북의 창 캡처)〉

북한이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정령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키우고 있는 녀성들을 표창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령에는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과 뜨거운 모성애로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 있는 녀성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닳) 및 국기훈장 제1급,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령에 의하면 로력영웅칭호가 3명에게, 로력훈장이 6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138명에게, 국기훈장 제3급이 507명에게, 공로메달이 2천917명에게 수여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평양에 있는 여성전문병원인 평양산원에서 세쌍둥이가 퇴원했다며 산모가 의료보장체계 아래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점을 부각했

다. 4월 11일자 기사에서는 세쌍둥이를 낳은 부모는 국가로부터 은장도와 금반지를 받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북한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으면 성별에 따라 은장도(남)와 금반지(여)를 선물하고 다둥이들이 입을 옷과 첫 돌상, 성인이 돼 결혼할 때 입을 옷감 뿐 아니라 양육보조금도 제공한다. 17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이뤄진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아제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출산율이 꺾이면서 노동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인구 2천595만5천13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5%를 차지했다.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선 것이다.

북한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담당 의사를 배정할 뿐 아니라 주택,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등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집안일과 육아를 대부분 전담하면서 장마당 활동으로 경제적 부양책임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인구구조에 당장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4월 14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경제
저자: 홍제환
출판사: 도서출판 해남
발행일: 2023년 02월 24일
가격: 14,000원

전문가일수록 어려운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풀어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떤 주제에 관하여 쉽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책이 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반 독자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과하게 구체적인 책도 있다. 또 어떤 책들은 북한 경제의 최근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일화를 주로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북한 경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두 종류의 책이 모두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때로는 심플하게, 그렇지만 핵심을 모아서 큰 그림으로 북한경제를 설

명해주는 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의 저서 ‘북한경제’는 이러한 필요에 잘 맞는 책이다. 이 책은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그리 두껍지 않는 분량으로 북한 역사를 따라 북한 경제의 흐름을 훑어간다. 출판사 서평에서 이야기하는 이 책의 구성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요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0~2015」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변화를 시장화, 경제개혁, 대외 경제 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뒤,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며, 제5장 「제재의 충격, 2016~2021」에서는 2010년대 후반 들어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책을 처음 접할 때 들었던 생각은 가격에 비해 책이 너무 얇은 것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간략해 보이는 분량으로도 사람들이 북한 경제에 대해 주로 궁금해할만한 점들을 놓치지 않고 서술해놓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이 더뎠던 이유, 고난의 행군의 원인,金正은의 경제 정책의 특징, 대북 제재의 내용과 영향 등 대부분의 북한 경제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다루고 있었다. 헛갈리거나 혼동될 수 있는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느꼈다. 표나 그래프도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삽입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는 조그마하게 용어

설명도 첨가해놓았다. 책의 외견에 비해서 내용이 알차다고 말할 수 있겠다.

분량이 적은 만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자에 따라서는 짧은 서술로는 충분치 못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독자라면 몇몇 부분에서는 책의 설명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학술적인 책이다 보니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고, 풍성한 자료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알맞은 책은 아니다. 이는 이 책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책의 방향성과 특성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출판사 서평을 보면 전문가로서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설명하고 있어 북한 경제 입문서로 삼기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책을 읽으며 북한 경제를 짧은 호흡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디테일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이 대다수의 일반 독자의 필요에는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종종 섬기고 있는 북한선교학교 수강생 분들께서 북한 경제 공부에 읽을 만한 책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책을 입문서로 추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경제에 대해 배우고 싶는데 내용이 어렵고 공부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이 책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해본다. 

-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13일, 북한은 고체연료 ICBM ‘화성-18호’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준비 시간이 액체연료 ICBM에 비해 매우 짧아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생각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더욱 요청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남북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따르면 ‘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 서적, 영상물, 사진, 그림 등을 보거나 소지한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유입과 배포의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처하는 매우 극심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으며,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 지하에서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3 북한의 청년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청년층을 겨냥하여 각종 사상문화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투까지 규제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현상만을 억압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도,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방향하며 한류 문화 등을 매개체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고 여러 탈북 청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회의 지도층으로 부상할 새로운 세대를 통해 북한 사회 전반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도록, 그러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인해 년 초부터 아사자 발생 뉴스가 나오고,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식량 및 농업만을 주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의 쌀 수입량이 전월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이 추수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시작된 보릿고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산간 오지에 추방당하였거나 나쁜 성분으로 더욱 어려

- 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5 세계 교회의 북한 선교 참여 확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노동력 수출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활동은 제재를 우회하는 외화벌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교적으로는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북한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교회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일깨우고 북한 선교로 동원하는 일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해외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 국적을 초월한 교회의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 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 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7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3월 20일부터 북한선교학교가 진행중입니다. 이번 북한선교학교는 총 17주 과정으로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모임, DMZ기도여행과 비전트립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께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학교의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각 순서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북한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또한 북한 선교에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E-mail :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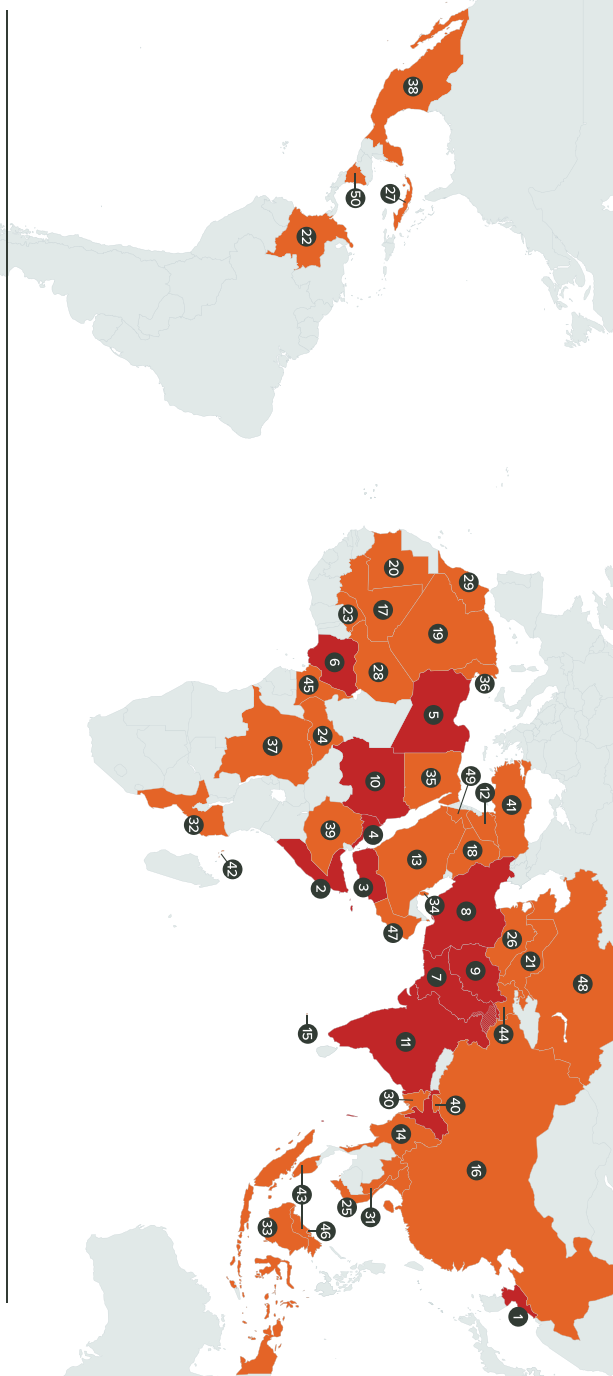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4월 28일

WORLD WATCH LIST 2023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 박해지도



ABOUT THE LIST

월드와치리스트에 관하여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실태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 별 박해지수는 폭력적 압박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는 삶의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폭력
- 개입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전 영역 지수의 총 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 합으로 결정됩니다.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북한	98
2	소말리아	92
3	예멘	89
4	에리트레아	89
5	리비아	88
6	니제르	88
7	파키스탄	86
8	이란	86
9	아프가니스탄	84
10	수단	83
11	인도	82
12	시리아	80
13	사우디아라비아	80
14	미얀마	80
15	몰디브	77
16	중국	77
17	말리	76
18	이라크	76
19	알제리	73
20	모리타니	73
21	우즈베키스탄	71
22	콜롬비아	71
23	부르키나파소	71
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70
25	베트남	70
26	투르크메니스탄	70
27	쿠바	70
28	니제르	70
29	모로코	69
30	방글라데시	69
31	라오스	68
32	모잠비크	68
33	인도네시아	68
34	카타르	68
35	이집트	68
36	튀니지	67
37	홍콩민주공화국	67
38	멕시코	67
39	에티오피아	66
40	부탄	66
41	터키	66
42	코모로	66
43	말레이시아	66
44	타지키스탄	66
45	카메룬	65
46	브루나이	65
47	오만	65
48	카자흐스탄	65
49	요르단	65
50	니카라과	65